

KTH

KTF 파란게임채널 서비스 실시

KTH의 <파란>은 지난달 2일 휴대전화를 통해 게임 내 정보는 물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KTF 파란게임채널>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송출되는 <파란게임 채널>은 '무료 아이템 이벤트', '알짜배기 게임팁', '아이러브 폰 게임' 등 총 9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선택한 콘텐츠에 따라 <파란>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 가이드와 노하우는 물론 무료 아이템 얻기, 모바일게임 무료 체험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쌍쌍파란소식'은 <파란>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의 이벤트·랭킹, 게임 내 이슈와 같은 재미있고 신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 '파란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고 있으며, '파란 OX퀴즈'를 이용해 파란게임에 관한 5가지의 문제를 풀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벅스

유료회원 100만명 돌파

국내 최대 음악포털사이트 벅스가 최근 유료회원 100만명을 돌파, 온라인 유료 음악 시장의 성장세에 청신호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료화에 들어간 벅스는 8개월 만인 지난 19일 유료회원(한 번이라도 음악이용권을 구매한 회원 수·중복 구매자 제외)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벅스는 유료 온라인 음악 시장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 때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회원 1,700만명을 확보하기도 했던 벅스는 지난해 유료화에 돌입, 유료화 8개월 만에 당당히 유료회원 수 100만명을 넘어서며 온라인 음악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이는 무료 콘텐츠에 익숙한 네티즌들이 양질의 음악 콘텐츠라면 기꺼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겠다는 인식 전환을 반영하는 결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성훈 벅스 사장은 "유료회원 100만명 돌파는 온라인 유료 음악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뜻 깊은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품질의 콘텐츠와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유료 음악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콤디지털솔루션즈

썸머 페스티벌 실시

태블릿 전문 기업 와콤(Wacom)의 한국법인 와콤디지털솔루션즈는 지난달 20일부터 <그래파이어 4(Graphire4)>와 <인투어스3(Intous3)> 구매고객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썸머 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오는 8월1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 와콤은 행사기간 동안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인 <그래파이어 4>와 그래픽 전문기를 위한 <인투어스3>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고급 피크닉 매트를 증정한다.

또한 해당기간에 <그래파이어4>와 <인투어스3>를 구매한 고객이 온라인 제품 등록을 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특히 이달 말일까지 와콤 홈페이지(www.wacomdigital.co.kr)에 온라인 제품 등록을 한 고객 중 45명을 추첨, 캐리비언베이 입장권 2매와 일회용 수중카메라, 그리고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각각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 3일에 발표한다.

서석건 와콤디지털솔루션즈 부사장은 "보다 편리한 사진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태블릿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사진을 촬영하는 소비자들에게 태블릿을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빌

LG텔레콤에 삼국쟁패 서비스 개시



게임빌의 삼국쟁패

게임빌의 대표 게임인 <삼국쟁패>가 지난달 15일부터 LG텔레콤에서도 서비스되면서 국내 모든 이통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게임빌의 <삼국쟁패>는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80만건을 돌파한 인기 게임. 특히 게임 내에 일기토라는 네트워크게임 시스템이 인기를 끌면서 모바일게임 사상 이례적으로 530여 개의 길드(연합)가 생성되어 있으며,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만 해도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게임성을 인정받아 현재 SK텔레콤과

KTF에는 <삼국쟁패> 월정액 요금제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이용자도 6만명을 돌파했다. 모바일게임 사상 세계 최초로 GM(Game Master, 게임 운영자)이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NHN

독립영화 무료상영관 오픈

NHN의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최근 독립영화 전문배급사인 인디스토리과 제휴를 맺고, 개성 있는 독립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독립영화 무료상영관' (movie.naver.com)을 오픈했다.

이번 사이트 오픈으로 네이버는 매달 10편의 참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독립영화를 선정해 6개월간 무료로 상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극장 개봉이 어려운 독립영화를 온라인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해, 독립영화 대중화에 나서게 됐다.

네이버는 독립영화 무료상영관 오픈 작품으로 백철현 감독의 <관성의 법칙>, 이효정 감독의 <까만 구름이 몰려와>, 이민경 감독의 <절간의 만우절>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작품 10편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소개, 수상정보 등의 영화정보와 함께 영화별로 네티즌 리뷰, 평점주기 등 네티즌 참여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간 정보교환 및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IBM

DB 신제품 DB2 V9 발표

한국IBM은 지난달 16일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DB2 V9>(코드명 DB2 바이퍼)를 발표했다. <DB2 V9>은 IBM이 5년 동안의 개발기간을 거쳐 내놓은 제품으로, 총 8개국에서 750여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특히 <DB2 V9>은 기존 문서 형태 뿐 아니라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사진·웹페이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향상했다.

한편, 한국IBM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한 <DB2 V9>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업무를 위한 DB2 버전인 <DB2 Express>, 그리고 개발자용 무료 배포 버전인 <DB2 Express-C>를 동시에 발표하며 DB2의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IBM은 최근 SAP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고객에게 <DB2 V9>과 SAP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솔루션 오픈링을 발표했다. <DB2 V9>은 안정성과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SAP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DB로 선정되었으며, 이 오픈링을 도입하는 고객은 1년간 DB2의 유지보수를 무료로 받게 된다.

손종민 한국IBM 정보관리 사업부 본부장은 "이번 신제품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술의 차세대 제품으로 DB업계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IBM은 인포메이션 온 디맨드 전략 하에 기업의 정보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실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와우포엠

3D 액션RPG게임 신작 출시



와우포엠의 3D 액션RPG게임 <엘즈웨어>

와우포엠이 최근 3D 액션RPG게임 <엘즈웨어>를 SK텔레콤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엘즈웨어>는 멸망한 제국의 마지막 후에 '소프'의 모험을 담은 게임으로 풀 3D 그래픽과 영화 같은 스토리의 퀘스트가 장점이다. 멸망한 제국을 재건하려는 소프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힘을 다스리는 검'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길에서 벌어지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스킬 있는 퀘스트를 수행한다는 것이 게임의 골자다.

특히 <엘즈웨어>는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게임이 실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광대한 맵과 38여종에 이르는 퀘스트와 이벤트는 게임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여준다.

또한 '마스터리 시스템'과 '스텟시스템'도 <엘즈웨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마스터리 시스템은 검술의 일종으로 레벨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연속공격을 취할 수 있으며 몬스터와의 전투도 스킬과 박진감을 더한다. 또한 스텟시스템은 캐릭터의 속성

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스텟에 분배되는 포인트에 따라 게이머 특유의 소프 캐릭터를 정할 수 있다.

한편, 와우포엠은 게임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데 SKT 게임매거진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오라클

콘텐츠 관리 신제품 출시

오라클은 최근 대규모의 비정형화된 콘텐츠를 더욱 쉽게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베이스 제품인 <오라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와 <오라클 레코드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비정형화된 콘텐츠의 전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오라클의 이번 신제품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IT 규제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고 비즈니스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제품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0g>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오피스 문서나 PDF, 문서 이미지, 그래픽 같은 전사적 규모의 콘텐츠를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기존의 인프라와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단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두 제품은 오픈 스탠더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SI업체들이 고객사의 기업 전체 조직에 맞는 사용자 맞춤 콘텐츠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웹서비스나 SOA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로저 스콧 오라클 아태지역 테크놀로지 컨설팅 부문 부사장은 "제대로 디자인된 콘텐츠와 레코드 관리 솔루션은 사용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IT 규제에 대한 우려와 비즈니스 위험성, 비용까지 절감시켜 준다"며 "특히 이번 신제품은 기업이 비용 효율적인 콘텐츠와 레코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한국EMC

1분기 국내 스토리지 시장 선두 유지

한국EMC가 최근 IDC의 2006년 1분기 시장조사 결과를 인용, 국내 외장형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10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IDC가 발표한 '2006년 1분기 스토리지 시장 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EMC는 국내 외장형 디스크 스토리지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32.3%를 기록, 10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편, IDC의 1분기 전세계 스토리지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EMC는 2006년 1분기 전세계 외장형 디스크 스토리지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21.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11분기 연속 1위 자리를 굳혔다. 전세계 외장형 디스크 스토리지 시장에서 EMC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시장별 조사에서도 EMC는 외장형 RAID, NAS, 오픈/iSCSI SAN(Storage Area Network)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석권했다. 특히, NAS, 오픈/iSCSI SAN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장에서 28.7%를 기록했으며, NAS 시장에서는 37.1%의 시장점유율로 8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엠포스

부동산 검색 서비스 오픈

엠포스는 최근 궁금한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부동산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의 부동산 시세와 매물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부동산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평당 시세는 물론 역세권별, 주요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다.

가령 '논현동 아파트'를 검색 창에 입력하면 이 지역 아파트의 평당 평균 시세(1,910만원)와 아파트별 매매가, 추천매물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또 평형 가격에 맞는 검색도 가능해 '삼성동 삼성래미안 31평형'이나 '사당동 아파트 1억 전세' 등 자신의 조건에 가장 근접한 부동산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지하철역명만 입력해도 해당 역세권의 다양한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올림픽공원을 검색하면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매물중 도보 10분 이내의 아파트를 볼 수 있고, 동대문역을 찾으면 이 지역 다기구 주택과 인근 상가, 의류매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한성숙 엠포스 검색사업본부 이사는 "과거에는 검색이 불가능했던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과 건대원로 월세와 같이 부정확한 검색어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조만간 전체 매물에 대한 지도 정보도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후코리아

위젯 3.1 버전 출시

야후코리아는 최근 RSS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야후의 기타 서비스와의 연동이 강화된 (위젯 3.1) 버전을 오픈했다.

현재 야후코리아는 검색·날씨·주식정보·메모장·아날로그 시계 등의 기본 번들 엔진과 함께 위젯 갤러리를 통해 야후에서 만든 위젯과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다양한 위젯들을 업로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탕화면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바로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위젯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위젯 중 이번 3.1 버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2006 독일 월드컵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월드컵 위젯'. 월드컵 위젯은 피파월드컵닷컴과 연계되어 사용자는 월드컵 관련 조 편성, 경기 정보, 뉴스 등 모든 월드컵 관련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컴퓨터 바탕 화면상에서 받아들 수 있다.

또한, 이번 버전에서는 '마이 헤드라인 위젯'이라는 새로운 번들 위젯이 추가됐는데, 이 위젯을 사용하면 마이 야후에서 설정해 놓은 RSS 콘텐츠들을 위젯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위젯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함으로써 위젯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편익을 높였다. 야후 위젯은 다운받을 시 19가지의 기본 번들 엔진이 제공되는데, 이 중 일정 관리, 주소록, 메일체크, 메모장, 마이 헤드라인, 증권, 날씨 위젯 등은 야후서비스와 연동된다. 해당 위젯들을 통해 웹 브라우저만이 아닌 바탕 화면상에서도 유저들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티넷

코사인 지적 재산권 인수 완료

안티바이러스-IPS 솔루션 제공업체인 포티넷은 최근 코사인커뮤니케이션즈(이하 코사인)가 출원 중에 있는 특허와 지적 재산권의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인수와 관련, 코사인은 기존 고객에게 양도된 지적 재산권 사용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유지하기로 했고, 포티넷은 지적 재산권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 전

송 플랫폼 선두 기업인 코사인의 솔루션은 통신사업자 및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로 하여금 동시에 수천명의 사용자들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방화벽·VPN·광대역 보안 액세스 등이 해당되며, 코사인이 출시한 솔루션으로는 IPSX 스위치, InVision 서비스 관리 시스템, InGage 고객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이번 지적 재산권 인수 작업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한 보안 서비스를 비롯, 사용자 프로필 관리, 가상 라우터 등 여러 형태의 기술과 주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그라비티

타임엔테일즈 길드 미션 추가



그라비티는 최근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타임엔테일즈의 길드 미션을 추가했다.

그라비티가 최근 자사가 서비스하는 시간여행 RPG <타임엔테일즈>의 길드 미션을 추가하고 고급 용병 장보고를 공개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타임엔테일즈>의 길드미션은 '혼돈의 허리케인나이트 제

거', '혼돈의 염장 제거' 등 길드에 소속된 유저들이 각각 레벨에 맞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미션을 수행하면 장보고 용병을 만드는 주요 아이템인 '현재의 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길드미션은 길드원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각 유저들의 길드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는 영웅급 용병 장보고는 '허리케인나이트'를 통해 연성서를 구할 수 있다. 특히 장보고는 기본성장 스탯 외에 보너스 스탯이 추가되어 지금까지의 용병들과는 달리 유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캐릭터의 육성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엘코서비스의 NPC 미션관리자의 기능이 미션정보창으로 통합되어 보다 쉽게 미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자의 메뉴에 거래내역 표시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어 개인의 판매 및 구입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비 제조를 위한 바늘, 조각망치 등의 아이템 가격이 일정부분 하향 조정됐다. <타임엔테일즈>의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은 타임엔테일즈 홈페이지(www.timentales.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HP

도서지역 초등학교 지원 프로그램 완료



HP의 컴퓨터 교실 지원 프로그램

한국HP는 최근 '컴퓨터 교실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유디지탈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라남도 낙도지역 5개 초등학교에 HP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지원했다.

한국HP는 컴퓨터교실 지원 프로그램은 타 지역에 비해 IT 정보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라남도 도서지역 학교에 HP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을 설치 및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묘도초등학교(여수시 묘도동)와 금산초등학교(고흥군 대흥리), 금일동초등학교(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조도초등학교(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장산초등학교(신안군 장산면 대리) 등 5곳의 학교에 컴퓨터 설치를 완료했다.

한국HP의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은, 경영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세계 모든 지역의 환경·윤리·노동·기본권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준수하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HP의 굳은 약속인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낙도지역 지원 프로그램은 HP의 대표 총판업체인 영유디지탈에서 제품 설치를 담당했다.

CCR

HP·인텔과 공동 마케팅 전개

온라인 게임업체 CCR은 지난달 한국HP, 인텔코리아와 공동으로 바이브 기술이 탑재된 'HP 파빌리온 미디어센터 PC 체험단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포트리스2 블루> 회원 가운데 HP 파빌리온 미디어센터 PC 체험단에 응모하는 게이머들 가운데 총 100명에게 기존 가격 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HP 파빌리온 미디어센터 PC

m7370kr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

특히 100명의 체험단에 선정된 게이머들이 이달 15일부터 8월 5일까지 바이브 기술 체험 후기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 가운데 총 10명을 선정해 소니 디지털 카메라, HP 포터 프린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모든 체험단에게 <포트리스2 블루> 프리미엄 아이템 3개월치가 일괄 지급된다.

롯데마트

RFID 기반 시범 매장 오픈



롯데마트의 RFID 기반 Future Store

롯데마트는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RFID를 기반으

로 한 'Future Store' 시범 매장을 오픈했다.

이 시범매장은 롯데정보통신과 MS, LS산전, KTF가 공동으로 롯데마트 서울역점 정문의 PB(private brand) 신상품 홍보코너에 설치, 와이즐렉 신상품 60여종을 대상으로 고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된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RFID 기반의 시범매장 운영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 선반에서 상품을 드는 즉시 가격과 규격 등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대형 PDP화면을 통해 볼 수 있고, 키오스크를 이용해 상품 설명은 물론 조리법과 매장 진열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직원의 도움 없이 제공할 수 있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RFID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과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ROI 중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비즈니스에 주목해 유통환경 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드림위즈

2006 상반기 인기 검색어 발표

드림위즈가 최근 '2006년 상반기 인기검색어 50'과 '분야별 인기검색어 10'을 발표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첫 진출한 이후 무려 52년 만에 첫 원정승리를 거두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독일월드컵'이 1위에 꼽혔으며 한국과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 토고와 스위스, 프랑스도 동시에 화제의 검색어가 되었다. 2위는 앞으로 4년간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갈 일꾼을 뽑는 '5.31 지방선거'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3위는 대만·중국·멕시코·미국·일본 등을 차례로 제압하며 출전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지만 결승행이 좌절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었으며, 4위는 영화 <왕의 남자>의 공길역으로 5년간의 무명시절을 끝내고 스타덤에 오른 '이준기'가 올랐다.

특히 2005년 독도와 황우석 박사 등 사회 이슈들이 높은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 국가대항 경기가 많았던 만큼 스포츠 관련 검색어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게임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카트라이더>가 6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유지했고, 7위는 한국영화 천만 관객 시대를 이끈 영화 <왕의 남자>, 8위는 로또 광풍에 버금가는 대박 신화였던 '판교신도시'가 차지했다.

이밖에도 드림위즈는 2006 상반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던 화제의 검색어를 분야별로 정리해 서비스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온라인 보안센터 오픈

엔씨소프트는 최근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총 집결한 '엔씨소프트 보안센터'를 오픈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보안센터는 엔씨소프트의 게임사이트와 게임을 통해 제공해 온 각종 보안서비스, 최신 보안뉴스와 바이러스 정보를 총 망라해 놓은 웹페이지로 자사 홈페이지와 각 게임사이트(리니지·리니지2·길드워·시티오브히어로·레이엔씨)에 접속해 배너나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보안센터에서는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하는 '보안패치서비스' ▲온라인 백신을 실행하여 자신의 PC에 어떤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자신의 주민



엔씨소프트 보안센터

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이트를 검색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Siren24'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 엔씨소프트의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은 ▲게임 로그인 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회용 비밀번호 프로그램 '엔씨 OTP' (One Time Password) ▲게임 접속여부를 모바일 SMS로 알려주는 '엠컨트롤' (mControl) ▲게임 접속 시 자동 실행되는 해킹 방지 프로그램 'Game Guard'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키보드 보안서비스' 등 게임 보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네티즌의 보안상태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보안 캠페인을 통해 엔씨소프트가 건전한 게임문화뿐 아니라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콘

골드만삭서 100억원 투자유치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업체로 잘 알려진 오콘이 세계적인 투자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오콘은 지난달 16일 투자협정 체결식을 갖고, 이번 투자가 단순한 프로젝트 투자가 아닌 지분투자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오콘은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인기를 끈 <뽀롱뽀롱 뽀로로> 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형깁인형 질감을 절묘하게 살려낸 신작 3D 애니메이션인 <선물 배달부 디보>를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일호 오콘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2010년까지 글로벌 히트 애니메이션을 세 개 이상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체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사업을 전개해 오콘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SN

윈도 라이브 메신저 서비스 본격 개시

MSN은 지난달 20일 MSN메신저의 차세대 버전인 <윈도 라이브 메신저>의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윈도 라이브 메신저는 기존 메신저에 비해 커뮤니티 기능과 편리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이용자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공유폴더' 기능은 기존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간 자료 공유를 위해 사용되던 기능을 메신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메신저 대화상대로 등록된 사람끼리는 간단히 폴더를 만들어, 파일전송 없이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대화 상대 중 특정인을 대화명, 메일 주소로 검색해 찾을 수 있는 '대화상대 찾기' 기능, 대화 상대방만이 알아볼 수 있는 대화명으로 바꿀 수 있는 '별명 붙이기' 기능 등 고객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만간 한글화 서비스가 시작 될 '라이브닷컴', '윈도 라이브 메일' 과 '윈도 라이브 메신저' 와의 연동, 그리고 최근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각광 받고 있는 '아이버디' 와 '콘텐츠 팩'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다모임 · 티켓링크

동영상 콘텐츠 제휴



다모임은 영화, 연극 등 문화 관련 방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티켓링크에 제공한다

동영상 커뮤니티 다모임이 최근 국내 최대 실시간 예매 사이트인 티켓링크와 동영상 콘텐츠 제휴를 맺었다. 티켓링크는 동영상 커뮤니티 다모임을 통해, 약 1,000여 건의 영화 예고편, 뮤직비디오, 콘서트, 뮤지컬, 연극과 다양한 문화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배우 인터뷰, 시사회 현장, 촬영 현장, NG 컷, 공연 연습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비공개 동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제휴로 다모임에서 봉준호 감독의 <괴물> 예고편을 보다가, 영화 관람을 하고 싶어진 경우 동영상 플레이어에 붙어 있는 '영화 예매하기' 버튼 클릭 한번으로 티켓 예매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모임의 영화 매거진 코너를 통해서도 실시간 인터넷 영화 예매 순위와 인기 영화 예고편 동영상의 랭킹도 살펴볼 수 있다.

소낙엔트

익스트림사커 모바일 버전 출시



모바일로 즐기는 온라인 축구 게임 <익스트림사커>

소낙엔트가 지난달 5일 자사가 개발 중인 익스트림 액션 온라인 축구게임 <익스트림사커>의 3D 모바일 버전인 <익스트림사커 모바일>을 3D게임 전용 폰인 KTF 지팡이를 통해 출시했다.

<익스트림사커 모바일>은 <익스트림사커>의 콘셉트에 맞게 고난이도 프리스타일 기술을 선보이며, 비주얼이 강화된 3D 모바일폰의 강점인 화려한 그래픽과 이펙트 등이 특징이다. 또한 멀티채널을 이용해 현장감 있는 사운드와 모바일 환경 등을 갖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게임은 튜토리얼 모드 · 도전 모드 · 프리스타일 모드 · 골든 골 등 총 4개의 모드로 나뉘어져 있다. 게이머는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 패스 · 골 · 태클 · 스킬 등 게임 전반적인 조작법을 익히게 되고, 도전 모드에 접속, 컴퓨터와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된다. 단 도전 모드는 튜토리얼과 달리 유저의 로그 기록이 남아 랭킹에 적용된다. 프리스타일 모드는 정해진 팀 없이 여러 팀과 대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저는 기본 세 팀 외에도 자유롭게 시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골든 골 모드는 시간 제약 없이 정해진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하는 모드로, 게임 시작 전 1~20 골에 해당되는 제한 골수를 지정하여 먼저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하게 된다.

박홍수 <익스트림사커> 프로젝트 총괄 PM은 "온

라인에서 즐겼던 <익스트림사커>를 이제 3D 모바일 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포터블과 콘솔용으로 <익스트림사커>를 제작해 모든 게임 플랫폼에서 <익스트림사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행성 PC도박장 근절 촉구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등 세 단체가 사행성 온라인 PC도박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문협 등 세 단체는 지난달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행성 온라인 PC도박장이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행성 온라인 PC도박장 근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들에게 사행성 온라인 PC도박장의 불법영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지시하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PC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이들 온라인 도박장들은 명백한 불법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게임 개발사나 체인업자 등은 수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건전하게 영업하려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주들을 유혹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장으로의 전환이나 신규창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업의욕을 말살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문협과 한컴산의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사행성 온라인 PC도박장 근절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정부의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

현대통신

저소득층 가정에 디지털 도어락 기증

홈네트워크 통합솔루션 전문 기업인 현대통신이 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에 자사의 디지털 도어락 총 100개를 기증한다.

현대통신은 송파구 내 11개 복지관과 재가복지 실무자들이 속해있는 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를 통

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우 주택이나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을 선정,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 도어락 설치에는 현대통신 서비스팀 직원을 비롯, 현대통신 협력 대리점도 자원봉사의 의미로 직접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현대통신이 기증하는 디지털 도어락은 비밀번호로 현관의 개폐가 가능하며 외부에서 침입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경보음을 울리는 방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내현 현대통신 회장은 "소득이나 인프라 등의 문제로 편리한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현대통신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리자드인터랙티브

천도온라인 日 진출



일본 시장에 첫 진출한 천도 온라인

리자드인터랙티브가 최근 일본 하이파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천도 온라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만, 중국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수출로 올해 안에 일본에서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리자드인터랙티브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아시아 주요 시장인 일본·중국·대만 게임 시장에서 안정적인 해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 및 유럽지역으로 서비스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와시온 하이파이브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천도 온라인>은 깊이 있는 세계관과 캐릭터 변신이라는 놀라운 시스템, 풍부한 게임성, 게다가 콘솔게임 특유의 화려한 연출까지 더해져 콘솔에 익숙한 일

본의 게이머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게임"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가 <천도 온라인>의 세계적인 성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KT

조선대 EMR 구축사업 착수

KT가 지난달 2일 조선대학교병원과 EMR(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조선대학교병원의 EMR구축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보화하여 대학병원과 산학협력병원과의 협진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MR은 진료 중 발생한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수기 작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진료의 안정성 및 질 향상, 환자 대기시간 절감 및 정보저장의 편의성, 환자기록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성이,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한다.

KT는 또한 조선대학교병원에 국내 병원 중 최초로 실시간 원격 데이터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한 재난 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KT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U헬스케어 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TRA·한국RFID/USN협회

RFID 해외진출 업무제휴 체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와 한국RFID/USN협회는 지난달 1일 국내 RFID/USN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및 해외 시장 정보 공유·공동조사 등의 협력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각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KOTRA와 한국RFID/USN협회는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RFID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업무제휴각서 교환은 한국RFID/USN협회가 지난 2월 'RFID World 2006(미국, 달라스)' 전시회의 한국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KOTRA가 적극 지원해준 것이 계기가 됐다.

두 단체는 공동협력을 통해 향후 중동, 남미 등 국내 IT 진출이 미진한 지역에 대한 IT 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아름방송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16일 아름방송네트워크와 디지털콘텐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아름방송네트워크가 추진하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계획 중인 디지털콘텐츠 종합영상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다. 판교지역은 앞으로 신도시 설립과 함께 영상미디어 산업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종합영상연구단지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방송콘텐츠 ▲디지털 영화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콘텐츠 ▲온라인 비즈니스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원격지 재해 복구 시스템 가동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달 13일 고객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다음이 구축한 재해 복구 시스템은,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에 의한 데이터의 손실 및 손상에 대비해 주 IDC 외에 별도의 원격지 IDC에 데이터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 전산 시스템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 원격지에 있는 IDC에도 동일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복제되고, 이를 통해 예기 못한 재해 발생시, 곧바로 신속한 데이터 복구 및 전산 시스템 복구가 가능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사용자 정보를 비롯한 각종 주요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 대고객 비즈니스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은 이번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하는 내부 통제 환경 및 정책 운영환경을 모두 만족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림위즈

적립포인트 서비스 개편

드림위즈가 이용자들을 위한 리워드 프로그램인 <오렌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가능한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적립 기간을 단축하는 등 포인트제도를 개편했다.

드림위즈 <오렌지>는 드림위즈 내의 각종 서비스 이용 시 무료로 제공받는 적립 포인트로 드림위즈의 유료 서비스 이용시 결제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념품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드림위즈로 로그인하거나 메신저 지니에 15일 이상 접속할때 문서검색에 내문서를 등록할때, 혹은 지식검색에서 질문과 답변 올릴 경우에 <오렌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검색만 해도 <오렌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은 이렇게 제공받은 오렌지로 ▲홈피를 아이템(BMG 뮤직, 꾸미기 아이템) ▲지니몰 아이템 ▲아바타 ▲유료 인물검색 ▲프리미엄 메일 ▲드림 디스크 ▲SMS ▲스트리밍 서비스 ▲아바타 상품 등 대부분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정찬구 드림위즈 <오렌지> 담당 팀장은 “충성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적립된 오렌지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NHN게임스

중국서 아크로드 시범 서비스 시작



NHN게임스가 중국에서 공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아크로드>

NHN게임스가 개발하고 중국 산다사와의 계약을 통해 현지 서비스를 진행해 온 정통 MMORPG <아크로드>가 중국에서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친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중국 게이머들의 의견을 수렴, 중국 현지화 작업을 완료한 <아크로드>는 지난달 18일 14시(현지

시각)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김병관 NHN게임스 대표는 “<아크로드>만의 화려한 그래픽과 타격감, 독특한 시스템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현지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아크로드>가 중국에서 한국 온라인게임 열풍을 다시 한 번 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천톈차오 중국 산다 대표는 “게이머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테스트 규모를 계속 확장해 온 <아크로드>의 이번 공개 시범 서비스는 중국 온라인게임 사상 최대 규모의 서버 수량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YNK코리아

로한 오토 방지 특허 출원



최근 오토 플레이 방지책을 선보인 로한

온라인 콘텐츠 퍼블리셔인 YNK코리아가 지난달 9일 YNK게임스의 MMORPG인 <로한>의 오토 플레이 방지를 위한 ‘온라인게임 비정상접근 방지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에 특허출원된 내용은 일반 유저가 직접 오토 이용자를 판단해 게임상에서 바로 자동 신고조치와 함께 즉시 PK 및 승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오토 방지 시스템. 이를 통해 기존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앴과 동시에 전 <로한> 유저가 함께하는 대규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로한 오토 방지 시스템은 유저가 직접 특수 아이템을 이용한 미니 퍼즐이나 주관식 퀴즈 게임 등으로 오토 이용 여부를 판단, 일정 수 이상 신고 됐을 시 벌점 제도를 통한 조치가 실행돼 지금까지의 방지책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지원 YNK게임스 운영센터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오토 유저를 무분별하게 방

치할 수밖에 없었던 업계 현실을 극복하고 또 하나의 게임 시스템으로 승화시킨 점이 독특한 재미요소가 될 것”이라며 “현재 최종 단계에 있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인터넷

모바일게임 블랙클라우드 SKT 오픈

CJ인터넷은 최근 신규 모바일게임 <블랙클라우드>를 SK텔레콤 네이트에 오픈했다.

아이엔지넥스사가 개발한 <블랙클라우드>는 CJ인터넷이 <넷마블모바일맛고>와 <말랑말랑풍선차기>에 이어 SK텔레콤에 세 번째로 선보이는 모바일 전용 게임으로 네이트 서비스가 되는 컬러 전기종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그간 선보였던 게임들과 달리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는 점과 최대 세 개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멀티캐릭터 운용으로 연출할 수 있어 각각의 캐릭터 모두 주인공이 된 듯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또, 전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전략 RPG인 만큼 역동적이고 화려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것은 물론 그래픽적으로도 세련된 배경을 구현, 몰입감을 더욱 높였다.

또한 게이머들은 ‘텐체 시스템’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형 고저 구현으로 공격방식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어, 한층 더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각의 캐릭터들의 공격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전투신을 연출, 보는 즐거움과 함께 게임의 묘미를 더했다.

CCR

RF온라인 브라질 수출

온라인 게임업체 CCR이 최근 브라질 게임업체 레벨업 인터랙티브와 자사의 SF 3D RPG게임 <RF온라인>의 브라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레벨업 인터랙티브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게임업체 레벨업의 브라질 지사로 현지에서 <라그나로크>를 서비스 하고있는 업체. <RF온라인>의 브라질 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CCR은 현지화 작업 및 업데이트 등 기술적인 제반사항을 책임지게 되며, 레벨업 인터랙티브는 브라질의 <RF온라인> 마케팅, 서비



RF온라인

스 운영 및 2차 저작물 사업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윤석호 CCR 대표이사는 “RF온라인이 남미 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을 첫 진출 국가로 삼았다”며 “하반기 안으로 멕시코, 칠레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머지 남미 지역에 추가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브라질 수출을 계기로 RF온라인은 유럽 28개국과 미국·일본·중국·대만·필리핀 등 전 세계 34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사이월드

마켓커뮤니티 싸이마켓 오픈



일촌 간 마켓커뮤니티 싸이마켓

사이월드가 지난달 8일 일촌들의 마켓커뮤니티인 <싸이마켓>을 오픈했다.

사이월드의 1,800만 실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싸이마켓은 일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정보를 통해 회원 간 커뮤니티 케이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상품구매가 아닌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커뮤니티 개념의 마켓이다.

이를 위해 싸이마켓 내에서는 실제 쇼핑할 때처럼 나를 잘 아는 일촌들이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기 구매자들과 솔직한 상품평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회사측은 고객과 고객, 판매자와 고객이 함께 투데이 쇼핑 스토리, 포토후기 등을 통해 쇼핑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는 물론 풍부한 스토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다.

또한, 회원들은 판매자들이 개설한 '타운홈피'에 방문해 다양한 상품정보는 물론 일촌 맷기를 통해 신뢰감 있는 고객센터와 사은행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네이트온 이용자가 관심 판매자를 버디로 등록하면 상품에 대한 각종 문의는 물론 신규상품, 이벤트 등 최신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보며 실시간 주문 및 신속한 배송 조회도 가능하도록 연동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포뱅크

판도라TV에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



판도라TV 동영상 서비스

메시징서비스 전문기업 인포뱅크가 최근 판도라TV와 인터넷 동영상 MO(Mobile Originated)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제휴를 체결했다.

MO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로 SMS나 MMS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각종 이벤트 메시지나 사랑고백 등은 물론 설문 조사로도 활용가능하다. 이와 같은 메시지 전송방법 및 수신번호체계에 대한 원천기술은 이미 인포뱅크가 핵심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인포뱅크에서 제공하는 MO서비스는 판도라TV 동영상상을 이용하는 시청자가 문자메시지를 판도라TV에 부여된 수신번호로 보내면, 70만개 동영상 채널로 최대 5,000명에게 동시 노출된다. 판도라TV의 각종 동영상상을 즐기는 시청자들이면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동영상상을 동시에 시청하는 이용자들 간의 인터랙티브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글꼴·크기·효과 등 나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 향후 멀티미디어 세대들의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산원

모바일 RFID 시범서비스 계획 발표

한국전산원은 지난달 19일 모바일 RFID 관련 인프라를 9월까지 구축하고,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900MHz 대역의 모바일 RFID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RFID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RFID 리더기를 장착해 휴대전화로 RFID 태그를 읽어 들어, 가입자들이 액정화면을 통해 제품의 진위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은 u포털 서비스(음반 판매 매장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해 디지털콘텐츠 감상 서비스 제공)를, KTF는 u스테이션서비스(버스 정류장 등 일정 장소의 시설에 부착된 RFID 태그를 휴대전화로 읽어 고객의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u커머스 서비스(상품에 부착된 RFID 태그를 휴대전화로 읽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로 구매/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양사는 택시안심서비스(모바일 RFID 리더로 택시에 부착된 태그를 읽음으로써 택시정보를 조회하고, 지인에게 택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비롯해 관광지나 식품·약품·한우 등의 관련 정보가 담긴 태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광정보안내서비스, 식품이력조회서비스, 한우 원산지조회서비스, 의약진품확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엔도어즈

게임전용 폰트 개발

엔도어즈가 최근 폰트 전문 개발 업체 정글시스템과 게임 전용 폰트 '타임엔테일즈체'를 개발했다.

<타임엔테일즈체>에 첫 도입된 타임엔테일즈체는 게임에 쓰일 4종류의 폰트를 각 사이즈 별 BMP로 제작하여 수학적으로 사이즈를 조정했던 윈도 폰트보다 가독성이 높고, 작은 사이즈에서 글자가 깨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양새가 비슷한 1(숫자), l(한글), l(영대문자), !(느낌표) 등 글자의 차별성을 높여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폰트와 게임그래픽과의 조화로 심미적인 측면 강화와 기존 윈도 폰트에 식상해진 유저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회

DC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정품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위한 서명 운동 캠페인 모습

프로그램심의회(이하 프심위)는 지난달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품 디지털콘텐츠 사용 서명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메신저나 P2P 등의 사용빈도가 높은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용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현장상담 및 정품사용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규정보 프심위 위원장은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을 근절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용자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UNESCO와 양해각서 체결



마이크로소프트는 UNESCO의 ICT 개발지원센터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태지역

정부 당국자의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위해 인천에 설립되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 개발센터(The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APCICT, 이하 ICT 개발센터)에 SW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UNESCO의 김학수 사무총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태지역 에드와르도 로시니(Eduardo Rosini) 대표가 각각 서명했으며 양해각서 조인식에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ICT 개발센터는 아태지역 정보통신기술 부분의 인력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UNESCO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한국정부의 주도와 재정지원에 따라 아시아 최초로 설립되는 ICT 개발센터는 아태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정책 당국자, 정보통신기술 전문인력 및 교육 담당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부분의 글로벌 모범사례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식경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양해각서의 조건에 따라 SW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및 연수교육 로드맵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ICT 개발센터 교육 담당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교육, 인증 및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윈디소프트

갯앰프 신규 모드 추가



에라 드래곤 모드의 추가로 난이도를 높인 갯앰프

윈디소프트는 지난달 16일 자사의 3D 대전 액션 게임인 <갯앰프>에 '도전! 에라 드래곤' 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도전! 에라 드래곤은 최대 3인까지 함께 도전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협력해 NPC를 쓰러뜨리는 형식의 챌린지 모드다. 강력한 NPC인 에라 드래곤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 챌린지모드와는 달리 난

이도가 높은 편.

에라 드래곤의 등장에 앞서 에라 특공대와 양산형 에라 드래곤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 NPC는 에라 드래곤의 아류작으로 에라 드래곤을 물리치기 위한 연습과정이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강력한 에라 드래곤과의 대전이 시작된다.

이 모드에서는 게임이 시작되면 맵 구석에 세 종류의 물약이 떨어진다. 흰색 물약은 스피드를 높여 주고 노란색 물약은 공격력을, 파란색 물약은 HP를 높여주기 때문에 함께 참가한 캐릭터들과 적절히 분배해서 물약을 먹어야 한다.

에라 드래곤은 강력한 파워와 방어력을 지니고 있어서, 단순히 때리는 것만으로는 격파가 어렵다. 따라서 맵 상에 있는 무기 아이템 '메가 빔 캐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공략 포인트다.

한국MS

Xbox Live 결제용 웹사이트 오픈



Xbox Live 결제 사이트인 MS포인트 화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21일 Xbox Live의 유료 회원권 및 마이크로소프트 포인트를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www.mspoints.co.kr)를 오픈했다.

게이머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전화, 문화상품권 등으로 Xbox Live의 유료 회원권인 골드 이용권과 마이크로소프트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 결제 승인 후에는 게이머들이 실물 카드를 직접 배송 받는 것이 아니라, Xbox Live에 접속할 수 있는 선불 코드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혹은 e메일로 간편하게 전달 받아 Xbox Live를 즐길 수 있다.

KTH

기업용PC 백업 서비스 오픈

KTH가 지난달 27일 기업용 PC 백업 ASP 서비스인 <웹백업>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웹백업〉은 기업용 PC 백업 솔루션 전문업체인 미국 커넥티드사의 데이터 프로텍터(Data Protector)를 기반으로 개발된 ASP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 시스템(PC)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원격지의 안전한 저장소로 백업하고, 재해 발생 시 간편하게 복원할 수 있는 웹 기반 원격지 PC 백업 및 복구 서비스다.

KTH 는 지난 1월 시범서비스 오픈 이후 다양한 기능 개선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

KTH 가 제공하는 〈웹백업〉은 블록 단위로 증분 백업하는 '델타백업'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파일 서버나 웹하드 등에 비해 빠르고 효율적인 백업이 가능하다. 특히, 고유의 저장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백업한 데이터를 본인 이외에는 관리자조차 열람할 수 없다. 또한 백업 시점을 선택하여 복원할 수 있는 '다중 시점 복원', 시스템 전체를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환원(Heal)' 등의 특화된 기능도 제공되며, 그룹 상품의 경우 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그룹관리 및 리포팅 기능도 웹 기반으로 제공된다.

〈웹백업〉서비스 상품은, 기업 및 단체 대상의 '웹백업 그룹' 과 전문직 및 사무직 개인 사용자를 위한 '웹백업 싱글' 로 구성되며, 사용료는 1GB당 월 7,000~8,000원선에서 제공된다.

싸이월드

티온라인과 합작법인 설립

싸이월드와 유럽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인 티온라인이 지난달 22일 독일지역 내 싸이월드 서비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싸이월드와 티온라인은 이번 계약을 통해 독일에 싸이월드 유럽법인을 설립, 싸이월드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싸이월드 서비스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독일 내 싸이월드 서비스를 함께 할 티온라인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유럽 내 가입자 1,400만명을 보유한 유럽 인터넷업체로, 티콤(T-Com), 티모바일(T-Mobile) 등의 유무선통신네트워크를 보유한 유럽 내 대표적 통신업체 도이체텔레콤의 자회사다.

이번 티온라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여러 국가들이 지역적으로 모여 있는 유럽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지역 내 넓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이 한층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결정되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유럽국가 중 가장 앞선 인

터넷인프라와 인터넷이용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싸이월드 서비스의 현지화 작업을 한층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싸이월드는 지난 해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대만·미국에 이어 국내 인터넷서비스로는 처음으로 유럽지역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유현오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5,000만명에 가까운 인터넷이용인구를 보유한 독일은 유럽국가 중 가장 큰 인터넷시장으로, 싸이월드의 유럽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며 "티온라인의 풍부한 시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 싸이월드만의 앞선 경험과 새로운 가치를 유럽 이용자들에게 하루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크림프 프리오픈 테스트 실시



캐주얼RPG 크림프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개발 중인 캐주얼RPG 〈크림프〉의 프리오픈 테스트를 이달 20일까지 실시한다.

프리오픈 테스트는 24시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식의 비공개 서비스를 한 달간 진행되며, 차후 안정적인 공개 시범서비스를 위한 최종점검으로 게임의 재미와 사용자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테스트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게임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하여 귀엽고 아기자기한 〈크림프〉의 동화적인 느낌을 살렸고, 게임에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도 쉽고 편하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지금까지 비밀에 싸여있던 도시가 추가돼 유저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신단수'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향후 〈크림프〉의 경제·문화·정

치의 중심지가 될 곳으로, 이번 프리오픈 테스트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퀘스트·스킬·아이템 등 게임 내 다양한 콘텐츠 추가 외에도 개발과 운영에 신중을 기해 게임의 질적 수준을 끌어 올려 유저들의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크림프〉는 자연을 소재로 한 밝은 분위기의 온라인게임으로 숲을 정화하기 위한 요정들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게임(RPG, 아케이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선택의 자유도'가 특징이다.

그레텍

젼파이터 업데이트 실시



온라인 대전액션 젼파이터

그레텍은 최근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대전액션게임 〈젼파이터〉에 신규 아이템 '코로슈'와 '악마의 날개'를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코로슈는 러시아 첩보부대 요원들이 연마하고 있는 전통무술로, 〈젼파이터〉에서는 다양한 공격술과 방어술을 자랑하는 비전서로 업데이트 되었다. 코로슈는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술답게 동작이 크고 화려해 한번에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 뛰어나다.

악마의 날개는 플레이 도중 상대에 의해 번지를 당하거나 실수로 스테이지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젼파이터〉에는 번지 당하기 쉬운 여러 공간과 함정이 존재해 초보 유저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단, 매번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50% 확률로 떨어지기도 하여 악마의 날개라 불린다.

박종하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사업부장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젼파이터〉만의 시원한 타격감에 특색 있는 신규 아이템이 추가되어 게임의 재미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래시게임

휴대전화 사진전송 서비스

플래시게임이 최근 홈페이지와 제휴를 맺고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전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플래시게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 플래시 퍼즐게임 솔루션과 홈페이지 휴대전화 사진전송 서비스 솔루션을 접목하여 캐릭터나 재미난 사진을 전송하여 나만의 개성 있는 폰 꾸미기를 할 수 있다.

플래시게임의 퍼즐솔루션은 개인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플래시게임 사이트에 전송하면 즉시 퍼즐게임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게임도 즐길 수 있어 재미를 더하고 있고 게임 사진을 자신의 폰에 전송하거나 친구, 애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EA

미씩 엔터테인먼트 인수

일렉트로닉 아트스(Electronic Arts 이하 EA)는 최근 <다크 에이지 오브 카멜롯>으로 유명한 미씩 엔터테인먼트(Mythic Entertainment)를 인수하는 계약에 합의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미씩 엔터테인먼트는 EA 미씩(Mythic)으로 사명이 변경되고 MMORPG게임 개발에 전념하게 된다.

미씩 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혁신적인 게임으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는 <다크 에이지 오브 카멜롯>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게임스 워크샵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워해머 온라인 에이지 오브 레코닝(Warhammer Online: Age of Reckoning)>을 개발 중이다.

이번 인수에 따라 미씩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이자 CEO인 마크 제이콥스는 EA 미씩의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가 되고 미씩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이자 부사장인 롭 덴튼 역시 EA 미씩의 부사장을 맡게 된다.

코리아와이즈넷

교보문고 통합검색엔진 구축

검색솔루션 전문업체 코리아와이즈넷은 최근 교보문고에 인터넷 쇼핑물의 새로운 진화 모델인 개인형 맞춤 서비스 기능이 강화된 '인터넷 교보문고'에 통합검색엔진 구축을 완료했다.

교보문고는 이번 작업을 통해 기존의 온·오프라

인 도서유통은 물론 향후 지식문화콘텐츠 및 디지털 상품군까지 다양한 상품영역을 한 공간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e마켓플레이스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 서점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하고 포털급의 강력한 검색엔진 및 블로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2.0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인터넷쇼핑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교보문고에 새롭게 구축 된 검색은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찾는 데 중점을 둔 쇼핑물 검색 기능과 자연어 검색을 통하여 콘텐츠 및 웹문서 정보를 찾는 포털 검색 기능의 장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자체 상품 DB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세부 분류를 보여주고, 다양한 칼럼의 상세검색과 색인·주제어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사용한 검색어 저장 기능, 키워드 등의 새로운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박재형 코리아와이즈넷 영업대표 이사는 "이번 교보문고에 새롭게 구축된 검색은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감안한 새로운 검색 UI"라며 "그 동안 국내 주요 포털 및 쇼핑물을 구축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 접근성의 극대화를 꾀했다"고 강조했다.

비즈폼

비즈플랜 서비스 출시



사업계획 자동작성 비즈플랜 서비스

서식 전문 포털 비즈폼이 최근 사업계획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비즈플랜>서비스를 선보였다.

비즈폼이 제공하는 사업계획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마우스 몇 번의 클릭으로 최소 3분 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원클릭 문서 작성 서비스로 좀 더 편리하고 수준 높은 문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의 사업계획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원클릭 문서 작성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면 비즈플랜 서비스는 사업계획서 표지 디자인과 회사소개, 시장현황, 경쟁업체 분석 등 총 25개의 내부 디자인, 사업계획서 샘플 등 총 2,300개의 사업계획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파워포인트 지식 콘텐츠 코너를 통해서 파워포인트 기본 사용법과 파워포인트 팁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나 유의사항, 프리젠테이션 팁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선규 비즈폼 팀장은 "직장인들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경쟁력과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비즈플랜 서비스가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산원

홈서비스 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로봇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은 지난달 28일 가정 및 공공부문 URC 로봇 시범서비스 주관사업자로 KT를 최종 선정했다.

URC는 로봇 플랫폼에 통신기능을 장착하고 음성인식·음성합성 등 인공지능 기능이 구현된 서버(URC 서버)와 통신망을 통해 접속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로봇을 접목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URC 로봇 시범사업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는 KT가 BcN 및 FTTH, 홈네트워크 등 기반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안한 ▲수도권 660대 ▲대구권 100대 ▲광주권 200대 ▲유아교육기관 40대 등을 수용해 가정부문에 약 1,000대 규모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공공부문은 여객터미널·우체국·전시시설 등 대국민 홍보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우선 고려한 제안내용을 전폭 수용해 ▲인천공항 6대 ▲서울역 4대 ▲김포공항 4대 ▲광주시청 2대 ▲부산우체국 2대 ▲부천 로보파크 2대 등 총 20대의 URC 로봇을 활용해 공공용 URC 로봇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KT는 주관사업자로서 URC 서버 개발, 콘텐츠

개발, 통신망 및 서비스 운영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시범가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개통 및 기술지원을 위해 300명 규모의 로봇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적인 AS망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KT가 협력사로 선택한 공공용 로봇 플랫폼 업체는 삼성전자, 다사테크, 로보테크 등이며, 가정용 로봇 플랫폼 업체는 유진로봇, 한올로보틱스, 다사테크, 이지로보틱스/아이오테크, 모스트아이텍 등 6개사다.

한국전산원은 향후 URC 로봇 시범사업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1,000대 규모의 홈로봇 제품을 일반 가정과 유치원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며 휴대전화 서비스와 결합한 홈 모니터링을 비롯해 로봇에 특화된 교육·정보·오락·가사·감성서비스 등 약 20여종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도로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해 수익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온세통신

모바일주소 발급대행 서비스 오픈

온세통신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모바일주소(WINC) 등록대행 사업자로 선정되어 <윙크고(www.wincgo.com)>사이트를 오픈하고 모바일주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주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할하는 무선 도메인 체계로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청, 발급받아 휴대전화에서 해당번호와 핫키(무선 인터넷키)를 누르면 번호 신청 시 등록했던 무선인터넷 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윙크고>서비스는 국내 최초 개방형 무선인터넷 소원(So1)이 가진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바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M-Agency, M-IDC 등의 부가 서비스와 콘텐츠 ASP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고객들이 모바일 마케팅은 물론 모바일 사업까지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윈스톱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단순 모바일주소 발급 대행 사업자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장석진 온세통신 포털사업팀 과장은 “그동안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모바일 CP나 독자적인 모바일 사업에 애로를 겪던 기업, 모바일 마케팅을 계획했던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텔레콤

틴 벨 서비스 실시

LG텔레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업체인 블루엠과 제휴, 휴대전화 벨소리가 연령층에 따라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틴(Teen) 벨>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틴 벨 서비스는 1만7,000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20대 후반의 성인들부터는 청력이 떨어져 8,000Hz대 이상의 고음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된 서비스.

국내에서도 최근 10대 이동전화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틴 벨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음원 칩에서 고주파음의 재생을 지원하지 않아 틴 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에 LG텔레콤은 블루엠과 공동으로 음원칩에서 고주파음을 재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음원칩 가공 및 개발에 성공, 국내 최초로 성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특이한 고주파 음역으로 만들어진 틴 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유인호 LG텔레콤 뮤직사업운영팀 부장은 “틴 벨 서비스는 10대들만 들을 수 있지만 청감이 좋다면 30대 이상도 들을 수는 있는 특이하고 재미있는 서비스”라며 “뜨래의식과 자신만의 개성이 강한 10대들로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동부정보기술

ITSM 시스템 구축 완료

동부정보기술이 지난달 27일 ITSM(IT서비스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지난 3일 공식 오픈 된 ITSM 시스템은 고객사인 동부그룹 전 관계사에 우선 적용, 운영되며 향후 전 고객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부정보기술은 이번 ITSM 시스템 오픈을 통해 본격적인 ITSM체제로 전환함으로써 IT서비스 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표준인 ITIL(IT서비스품질모델)에 기반 한 통합 IT서비스 관리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장애 대응력 제고 ▲운영비용 절감 ▲IT자원 활용 효율화 ▲사용자 지원 강화 등의 IT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TRI

모바일 RFID SoC 개발

휴대전화 등의 단말기에 내장할 수 있는 900MHz 대역의 RFID 리더 기능을 한 개의 칩에 통합시킨 단일 칩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지난달 20일, 휴대전화에 내장할 수 있는 모바일 RFID 리더의 핵심 기능을 집적시킨 SoC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SoC는 기존에 각각의 칩으로 작동되던 RF·아날로그·베이스밴드 모듈, 프로세서를 하나의 칩 안에 내장한 것으로 각각의 기능시험 및 연동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ETRI 측은 설명했다.

또한, ETRI의 SoC 개발은 국내 모바일 RFID 포럼 규격을 따르며 EPC global Class1 Gen.2(ISO 18000-6C) 국제규격도 만족하도록 개발됐다. SoC 이외에 수동형 RFID 디지털 베이스밴드 칩과 RF 칩을 추가로 개발했으며, SoC로 만들에 따라 저전력, 가격 경쟁력, 부품의 소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ETRI측은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정보통신부의 RFID 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SK텔레콤이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ETRI는 SK텔레콤과 함께 개발된 SoC를 탑재한 동글형 모바일 RFID 리더 및 리더 내장형 휴대 단말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ETRI가 개발에 성공한 RFID 리더 SoC는 향후 휴대전화 등에 내장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 단말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 서비스 중 하나인 ‘택시 안심 서비스’는 택시 탑승자가 택시 내에 부착된 RFID 태그를 휴대전화의 리더로 읽어서 택시의 정보, 향후에는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보호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전송,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모바일 RFID 정부 시범사업을 올 10 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자별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채종석 ETRI 텔레매틱스·USN연구단 단장은 “모바일 RFID 기술은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향후 IT시장을 주도할 성장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상당해 국가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전자·파워콤

홈네트워크 사업 업무 제휴

LG전자와 파워콤이 집안의 디지털 가전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홈네트워크 사업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LG전자는 지난달 26일 초고속인터넷 업체 파워콤과 홈네트워크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의 홈네트워크 솔루션인 <LG홈넷(LG HomNet)>이 구축되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한다.

LG전자는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버를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 납품, 인터넷 프로토콜(IP) 설계 등 전체 네트워크 망을 설계하며, 파워콤은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망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전자는 파워콤과의 제휴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입주자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집안의 정보기기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지역/상가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와 u헬스 등 다양한 홈네트워크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범석 LG전자 홈넷사업팀장 상무는 "원격의료 서비스인 u헬스 서비스는 다양한 의료 콘텐츠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망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업무 제휴를 계기로 향후 국내외 홈네트워크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로직스

ETRI와 UWB 모뎀개발 계약

에이로직스가 480Mbps 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인 UWB(초광대역) 모뎀을 개발하기 위해 ETRI와 계약을 체결했다.

UWB는 초고속(50~480Mbps)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술이다. 때문에 DVD 플레이어나 디지털 캠코더와 HDTV간, PC와 모니터 또는 프린터간 무선연결이 가능하며, 대용량 영상 데이터나 고품질의 음악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필요한 모바일 단말기인 MP3, PMP 및 휴대전화와 이어폰간의 무선연결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김덕주 에이로직스 대표는 "1단계 목표인 핵심기

술 확보는 이미 완료했다"며 "현재 2단계로 최종 국제표준시장을 지원하는 480Mbps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비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가비아빌

가비아는 지난달 22일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가비아빌>을 오픈했다.

가비아빌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생하는 발송비용이 없고 관리업무도 줄어들어 기업의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또한 작성한 문서를 인쇄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수기 세금계산서를 엑셀 파일 등으로 일괄 등록하는 등 온·오프라인 병행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국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개키(PK)방식 암호화고리즘을 이용하여 보안성이 우수하다.

원광운 가비아 사업개발팀 차장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아직도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업무의 전산화를 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전자세금계산서를 시작으로 더 많은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전산화 혜택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웹비즈니스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HSDPA폰 미국시장 진출

삼성전자가 초고속 영상 전송 가능한 3.5G HSDPA폰을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에 수출, HSDPA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HSDPA폰(SGH-ZV50)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서 첫 출시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1.8Mbps의 초고속으로 영상과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HSDPA폰(모델명 SGH-ZX20)을 미국의 최대 사업자인 싱글러를 통해 첫 출시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출시되는 HSDPA폰(SGH-ZX20)은 1.8Mbps의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동영상 전송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최첨단 휴대전화다. 또한 블루투스 및 스피커폰을 갖추고 있으며 내장 및 외장 메모리를 지원한다.

특히 미국에 공급되는 이번 HSDPA폰은 서비스 지역과 형태에 따라 4가지 주파수 대역(850/900/1800/1900MHz)을 모두 지원하는 쿼드밴드(Quad Band) 제품으로, GSM과 WCDMA는 물론 EDGE 까지도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서나 단말기 하나만 가지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로밍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데토크코리아

중 광동 모바일TV에 CAS 제공

콘텐츠 보호 솔루션 전문기업인 이데토크코리아는 최근 중국의 광동 모바일TV에 모바일TV용 CAS(Conditional Access Solution, 콘텐츠보호솔루션)를 공급했다.

광동 모바일TV는 중국 방송관련 정부 기구인 SARFT로부터 지상파 DMB서비스를 위한 시험방송 허가권을 획득한 최초 방송사업자 중의 하나다. 광동 지역은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으로서 5,500만명 이상의 모바일 가입자를 확보하며 중국 최대 모바일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다.

광동 모바일TV는 앞으로 지상파 DMB 방송을 8곳의 전송 지역이 있는 주장강(Pearl River) 삼각주 지역에 송출할 계획이다. 또한 광동 모바일TV는 삼성전자 등 단말기 업체들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비디오와 오디오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병기 이데토크코리아 지사장은 "이데토크는 아시아 최초로 지상파 DMB 방송에 콘텐츠 보호 솔루션을 제공했고 이는 중국의 모바일TV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